

##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

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(기원전 약 1,000 년)에서는 후에 ‘가메가오카식 토기’라고 불리게 되는 조몬 시대(기원전 13,000 년~기원전 400 년) 후반에 일본 북부에서 만들어진 토기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. 고도의 제작 기술과 훌륭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한 이 공예품은 곧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.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, 대영박물관,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.

### 예술과 정신성

이 유적을 발굴한 결과,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함께 묻은 토광묘(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)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무덤 구덩이와 유적 곳곳에서는 잘 갈고 닦여진 토기, 광택이 있는 비취 구슬, 옷기, 식물 섬유로 짠 물건,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다양한 매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렇게 장식품이 공물로써 함께 묻혔다는 사실은 조몬 시대 말기의 사회가 발달된 정신 세계를 보유하고 복잡한 형식의 제사를 지낸 진화한 사회였음을 말해줍니다.

###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지 유적

조몬 시대 말기에 가까운 기원전 1,500 년~기원전 400 년경이 되면 무덤지는 마을 바깥에 만들어지고 여러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변모합니다. 또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와도 구분되도록 분리했습니다. 이전의 마을(기원전 3,000 년~기원전 2,000 년)과 비교해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의 독립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무덤지입니다.

### 인접한 관련 유적

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는 몇몇 안내 표지판과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토우상이 있습니다. 근처에 있는 다고야노 패총[링크]까지는 걸어서 15 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쓰가루시 조몬주거 전시자료관 카루코[링크]와 쓰가루시 기즈쿠리 가메가오카 고고자료실[링크]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다소 멀기는 하지만, 같은 아오모리현 내에 자리한 하치노헤시의 하치노헤시

매장문화재센터 고례카와 조몬관에는 고례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 
가메가오카식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